

2017년 1학기

글쓰기

소설/영화 비교 리포트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원작소설 비교연구  
-의도와 표현 차이를 중심으로-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1학년 6017\*\*\*\*

전\*우

담당교수명: 김인옥

제출일: 2017년 5월 29일

#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원작소설 비교연구

-의도와 표현 차이를 중심으로-

60171765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준우

## 목 차

- I. 서론
- II. 주제의 차이
  - 1. 소설의 유한적 사랑
  - 2. 영화의 영원한 사랑
- III. 표현 방식의 차이
  - 1. 기이한 인생이 표현된 소설
  - 2. 거꾸로가는 시간이 표현된 영화
- IV. 결론
- 참고문헌

=====

## I. 서론

소설과 영화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장르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소설은 영화로, 영화는 소설로 각색된다. 하지만 각색과정에서 작가와 감독의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변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영화는 영상매체이고 소설은 문자매체이기 때문에 각 매체의 특징에 따라 표현방식이 다르게 나타나야해서 변화되기도 한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sup>1)</sup>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sup>2)</sup>는 F. 스콧 피츠제럴드 작가<sup>3)</sup>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sup>4)</sup>를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이 둘은 공통으로 늙은 노인으로 태어난 벤자민의 기이한 인생을 다룬다. 그리고 벤자민을 통해 사랑, 성, 인간관계 등 여러 방면에서 인생을 설명한다. 하지만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이러한 작은 항목들에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내용과 결말이 소설과 영화 사이에

---

1) 데이비드 핀처(David Andrew Leo Fincher)는 1962년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태어났고 캘리포니아 주 머린 카운티에서 자랐다. 18살이 되었을 때 존 코티(John Korty) 감독 밑에서 일하며 영화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는<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소설 네트워크>로 두 차례의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

2) 데이비드 핀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파라마운트 픽처스, 2009.

3) F. 스콧 피츠제럴드(Francis Scott Key Fitzgerald)는 1896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태어났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 때는 군대에 들어가 육군 소위로 임관되었다. 제대 후 광고 회사에 취직 하였으나, 금방 그만두고 이후에는 글쓰기에 전념하였다. 이 때, 1920년 새로운 세대의 선언이라고도 할 만한 처녀작 『낙원의 이쪽 This Side of Paradise』이 출판되자 문학비평가들이 일제히 그것을 인정해 주었고, 많은 독자를 얻어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얻게 되었다. 그후 집필한 『위대한 개츠비』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미국 문학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4) F. 스콧 피츠제럴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미정 역, 서울: 북스토리, 2009.

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벤자민의 인생 속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랑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사랑은 무엇인지,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고들어 차이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표현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서술할 것이다. 매체의 특성에 맞게 표현을 하고 작가와 감독이 의도한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을 알아보며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작품의 차이를 알고, 작가와 감독이 의도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각각 무엇인지 밝혀 낼 것이다.

## II. 주제의 차이

### 1. 소설의 유한적 사랑

벤자민은 스무 살부터 아버지의 로저 버튼 철물도매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강요에 이끌려 상류층 무도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해 8월 어느 때와 같이 벤자민은 무도회에 참석했다. 벤자민은 그 곳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된다.

젊은 숙녀는 날씬하고 연약했으며 머리카락은 달빛아래서 창백하게 빛나다가 현관의 탁탁거리며 타오르는 가스 등불 아래서는 벌꿀 색으로 변했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 나비가 그려진 스페인풍 베일은 부드럽게 어깨 위로 펼쳐졌다. 허리받이를 댄 치마 아래로 드러난 두 발은 반짝이는 단추 같았다. 5)

그가 그녀를 위의 글처럼 표현하며 첫눈에 반했음을 보여준다. 둘은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고 사석에서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6개월 뒤 두 사람은 약혼한다. 그들은 결혼하고 애도 낳아 행복하게 살지만 서로 반대되는 시간을 살기 때문에 벤자민은 늙어가는 아내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 부부의 갈등은 깊어지고 벤자민은 젊어져가는 모습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한다. 성적 매력에 기인한 쾌락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를 보았을 때 벤자민은 감정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자만에 빠져 사리 분별을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사랑이라는 중요한 문제도 쉽게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다.

성적 매력은 순간적으로 합일의 환상을 일으키지만 사랑이 없는 한, 이러한 ‘합일’은 낯선 사람들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져 있게 한다. 때로는 이러한 ‘합일’은 서로 부끄러워하게 하거나 심지어 서로 미워하게 만든다. 환상이 사라질 때 그들은 이전보다도 더욱 뚜렷하게 격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6)

위의 글처럼 성적매력에 의한 합일은 순간적이고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한다.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은 증오를 만들고 고독감을 심화 시킨다. 설부른 벤자민의 행동은 암울한 미래를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쾌락에 의한 유한적 사랑은 고통만이 남는 것을 볼 수 있다.

5) F. 스콧 피츠제럴드, 앞의 책, 39쪽.

6)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황문수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6, 151쪽.

## 2. 영화의 영원한 사랑

1918년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 벤자민은 태어난다. 11년 뒤 벤자민은 데이지라는 어린 아이를 만나게 된다. 소설과 다르게 영화에서의 벤자민의 지능은 나이와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어린 데이지와 어울려 놀 수 있었다. 벤자민이 멀리 떠나게 되어도 편지를 통해 연락을 하며 지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둘은 만날 수 있었고 사이가 발전하여 결혼을 한다. 아이가 생기고 벤자민은 점점 어려워지는 자신이 아이를 챙겨주지 못할 것 같아 데이지와 아이 곁을 떠난다. 세월이 지나고 벤자민이 자기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어려워 있을 때 데이지가 벤자민을 찾아낸다. 그리고 데이지는 벤자민이 죽는 날까지 사랑으로 보살핀다.

여기서 소설과 영화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소설이 사랑을 충동적으로 시작하는 것과 반대로 영화는 꾸준한 연락과 만남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후 사랑을 결정한다. 이러한 깊은 고민은 영원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벤자민의 거꾸로 사는 인생으로 인해 특수한 관계가 형성된다. 데이지의 사랑이 연인간의 사랑에서 모성애로 바뀐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sup>7)</sup> 라고 말하는 것처럼 데이지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의 성격적 변화는 영원히 그를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 III. 표현 방식의 차이

### 1. 기이한 인생이 표현된 소설

소설에서의 벤자민은 태어날 때부터 몸부터 정신까지 모두 노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아버지와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자신이 누군지 판단한다. 기이한 인생의 시작이 누구나 알 수 있게 드러난다. 벤자민은 지능이 노인 수준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에 맞게 생활하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기는 아기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고’<sup>8)</sup> 벤자민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일부러 창문을 깨는 등 연령대에 맞게 행동을 한다. 이 행동들은 노인들의 보편적인 사려깊은 성품을 나타낸다.

18살 이후로는 연령대에 맞게 살길 원한다. 그래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지만 걸모습 때문에 쫓겨난다. 그 후로 가정을 꾸리고 군인이 된다. 걸모습이 완전히 젊은 남성이 됐을 땐 다시 대학에 도전하고 파란만장하게 삶을 즐긴다. 하지만 걸모습이 10대 이하가 되고 난 후엔 군인으로 복귀하려 해도 어린이 취급받고 아들에겐 멸시받으며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다. 짧게 사는 것, 시간을 거꾸로 사는 것, 듣기엔 달콤한 말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곁과 속의 괴리가 생기며 불행한 인생을 산다.

### 2. 거꾸로가는 시간이 표현된 영화

영화에서의 벤자민은 실제 신생아와 같은 모습, 목소리로 태어나지만 주름이 많고 관절이 약하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모습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한다. 감독은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벤자민은 또래아이들과 어울리기

7) 에리히 프롬, 앞의 책, 113쪽.

8) F. 스콧 피츠제럴드, 앞의 책, 24쪽.

원하지만 걸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 하나 벤자민이 겪는 어려움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역행적인 인생을 깨달을 때 쯤 같이 살던 노인들의 죽음을 보게 된다. ‘죽음이 나쁜 핵심적 이유는 죽음은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앓아간다.’<sup>9)</sup>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벤자민은 어린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겪어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걸모습이 비슷했던 그들은 나약해져 죽고 자신은 더욱 원기를 얻는 모습에서 혼란한 모습이 나타난다. 벤자민은 걸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어린 모습으로 치매에 걸리게 되고 신생아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영화 속 벤자민은 걸모습과 정신 모두 순환성을 지니고 있다. 신생아로 태어나 신생아로 죽고, 아기의 지능으로 태어나 치매에 걸려 다시 아기의 지능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전체적인 인생의 틀은 일반인과 같지만 거꾸로의 삶이 행복할까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어린 시절 자신의 나이와 맞지 않게 사는 것은 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평균나이를 80살이라 가정하면 약 50년정도는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처럼 생활하기 힘들다. 걸모습이 20대~30대가 됐다 해도 자신의 50년동안의 삶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힘들 것이다. 이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역행적 인생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한다.

#### IV. 결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비슷한 듯 다른점이 많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원 제목은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인생』이다. 소설이 영화보다 비현실성을 강조해서 ‘시간이 거꾸로 간다’ 보다 ‘기이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게 한다.

Ⅱ장에서는 주제에 따른 차이를 밝혔다. 원작 소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감정적, 쾌락적인 인생에 빠져 사랑의 유한성을 나타냈다. 반면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번 맺어진 사랑은 결혼 후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영원함을 보여주었다. 핀처는 모델 겸 사진가인 도냐 피오렌티노와 1990년에 결혼했고 1995년에 이혼했다. 그들에게는 딸 한명이 있으며, 피오렌티노는 게리 올드먼과 재혼했다. 이러한 핀처 감독의 배경을 봤을 때, 감독은 자신이 겪었던 이혼이 큰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영화에서 자신과 유사하게 부부간 이별하고 재혼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것을 영원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장에서는 표현 방법에 따른 차이를 밝혔다. 원작 소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태어날 때부터 육체와 정신이 모두 노인이다. 신생아의 모습이 아니고 언어까지 다 알고 있다. 소설이 일방향적으로 인생을 표현했다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영화가 시각적이다 보니 최대한 실제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 결과 벤자민의 일생이 순환적으로 표현되어 더욱 자연스러운 전개가 가능해졌다.

소설을 영화화 하는 것은 상상력을 시각화 하는 것이다. 상상은 상상하는 사람 각자의 배경과 경험에 영향을 받아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다. 우리가 영화로 보는 장면들은 우리의 상상과 같을 수도 있고 완전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은 나의 부족 혹은 감독의 대단함이 아닌 각자의 개성이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각색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감독의 내적 세계를

9) 셀리 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 박세연 역, 경기: 엘도라도, 2012, 655쪽.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저 감상만하는 영화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각색영화를 접한다면 풍부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차 대상자료

데이비드 핀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파라마운트 픽처스, 2009.

F. 스콧 피츠제럴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미정 역, 서울: 북스토리, 2009.

\* 2차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F.스콧 피츠제럴드”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77874&cid=43667&categoryId=43667>, 2017.05.28 최종검색.

씨네21, “데이비드 핀치”,

[http://www.cine21.com/db/person/info/?person\\_id=3845](http://www.cine21.com/db/person/info/?person_id=3845), 2017.06.18. 최종검색.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황문수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6.

셀리 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 박세연 역, 경기: 엘도라도, 2012.